

2010-02

통권 281호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1. 18 (月)



경제이슈

美 소매판매, 하락세로 반전
2009년 연간 물가지수 안정세

경영노트

개도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경영 키워드

사회트렌드

개미족(蟻族)

차이나 리포트

중국 지준을 인상 배경과 전망

저널브리프

BICIS의 비상

洗心錄

장수(長壽)의 의미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美 소매판매, 하락세로 반전

- 미국 상무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3%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였고 2009년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6.2% 감소
 - 자동차 판매 : 지난 11월에는 전월대비 1.2% 증가했지만 12월에는 전월대비 0.8% 감소
 -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 : 지난 11월에는 전월대비 1.9% 증가했지만 12월에는 전월대비 0.2% 감소
 - 전자제품 및 가정용 기기 : 지난 11월에는 전월대비 2.8% 증가했지만 12월에는 전월대비 2.6% 감소하며 부문별 소매판매 품목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냄

-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높은 실업률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증가세도 약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연간 물가지수 안정세

-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지수 동향에 따르면, 2009년 연간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2.8% 상승하였고, 생산자 물가와 수출입 물가는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
 - 소비자 물가 : 2009년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하였고, 연평균으로도 전년대비 2.8% 상승
 - 생산자 물가 : 12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하였으나, 2009년 연중으로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0.2% 하락
 - 수출입 물가 : 수출입 물가는 12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8.6%, 1.4% 하락하였고, 연중으로도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0.2%, 4.1% 하락

- 그러나 최근 원화가치, 국제 유가 및 상품가격의 급등으로 당분간 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경영 키워드1)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가 간의 성장속도 차이가 커짐에 따라 빠른 성장을 이루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
 - 2015년까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2% 미만에 머무나 중국, 브라질, 인도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개도국에서의 사업 모델로 해당 지역 고유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선진국 시장에 판매하는 역(逆)혁신 전략을 제시2)
- 기업이 선진국 시장을 벗어나 개도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 새로운 투자와 함께 정부, 주주, 직원과의 공감 등이 필요함

< 개도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9가지 경영 키워드 >

	내 용
성장 집중	•성장의 정체가 예상되는 시장이나 사업의 위험 회피 전략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와 도전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
글로벌 전략	•개발도상국의 변화 속도와 문화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선진국 시장에서 일반화되었던 사업 모델과 전략을 재수립
정부 관계	•경기 회복 이후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노사 관계	•기업의 비전, 목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노조와의 관계를 유연화
기업 가치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창출에 집중하여 주주, 고객, 직원 입장의 기업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함
보상 체계	•단기적인 실적에 따른 보상에서 지속적인 가치의 창출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보상으로의 전환
경영진	•경영진은 기업 전략에 대해 누구보가도 잘 숙지함과 동시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기업에 대한 책임 경영의 마인드가 필요함
기업 윤리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기업 윤리를 재정립
리더십	•기업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여 직원이 공감하는 경영을 펼침과 동시에 도전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조직의 확장과 강화

- 경제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소극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창출과 기업 성장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도전이 요구됨

1) 본 자료는 2010년 1월 Boston Consulting Group의 “Preparing for a Two-Speed world: Accelerating Out of the Great Recession”을 요약 정리함

2) 체어퍼슨 노트 2009년 10월 16일 ‘GE의 역(逆)혁신 전략(Reverse Innovation)’ 참조

□ 개미족(蟻族)³⁾

- ‘개미족’이란 고학력으로서 낮에는 첨단 벤처 타운으로 출근하지만, 비록 도시 안이라고 해도 달동네나 옥탑방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을 말함
 - 이 말은 렌쓰(廉思)라는 학자가 <이쭈>라는 책을 펴내면서 유행
 - 렌쓰는 이쭈를 도시에서 궁핍하게 사는 대졸 이상 고학력의 약소계층, 군집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정의
 - 상하이 등 대도시에 대규모이 이쭈 계층이 존재하는데, 베이징에만도 최소 10만 명의 이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쭈는 농민, 농민공, 해고 노동자와 함께 4대 소외계층에 꼽히는 사람
 - ‘이쭈’라는 말은 ‘팡누’(내집 마련의 노예), ‘위쭈’(달팽이 집 같이 협소한 주거 공간) 같은 말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과 무관치 않음
 - 비록 도시 속에서 지내지만 이쭈들이 사는 주택은 달팽이 집을 의미하는 위쭈처럼 10평도 안 되는 협소한 곳이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하기가 이를 데 없는 주거공간임

- 사회학자들은 이쭈라는 사회적 계층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등교육의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 즉 이쭈는 폭발적인 대학생 증원에 의한 학력 인플레이션의 산물
 - 예전 같으면 대학생은 졸업과 함께 차별화된 특전이 주어졌으나 고등교육의 상업화, 즉 대학생 모집 확대로 인해 대학생들도 최저 기층단계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됨
 - 2010년 기준 일반대학에서 630만 명의 졸업생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대졸생이 넘쳐나다 보니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금값이던 대졸생 신분이 고철값으로 떨어짐

- 산시성 시안의 이쭈는 지역을 뜻하는 글자인 친(秦)자를 따 속칭 ‘친이’라고 부름
 - 다른 지역의 이쭈처럼 대부분 80년대생(대략 22~29세)으로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블루칼라와 별 다를 게 없는 생활을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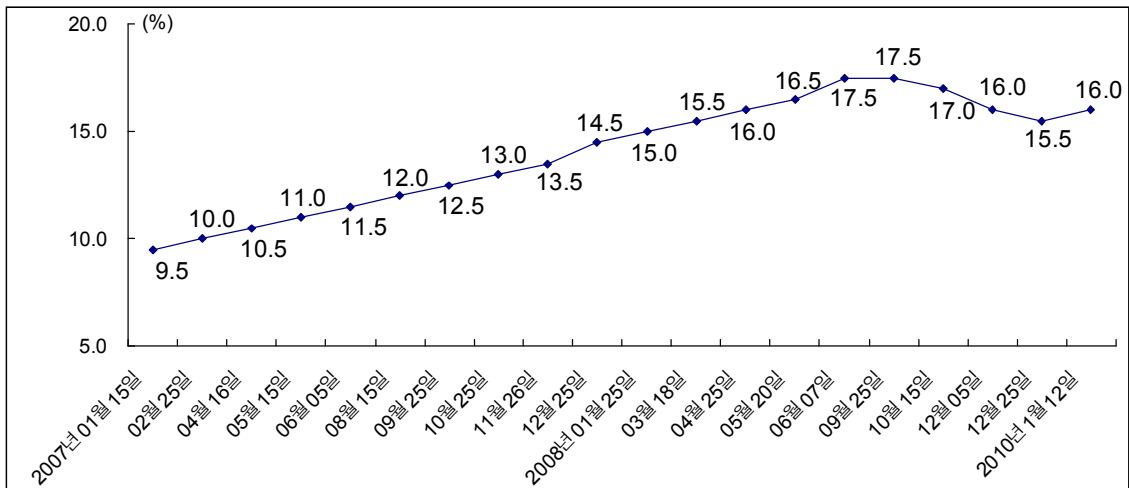
3) “중, 배고픈 엘리트 개미족 는다”(헤럴드경제, 2010.1.13) 참조

□ 중국 기준을 인상 배경과 전망

■ (개요)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1월 18일부터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⁴⁾을 0.5% 포인트 인상한 16%를 적용

- 금번 중국의 기준을 인상은 13개월 만에 취한 조치임
 -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2008년 12월까지 중국은 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 기준을 5회에 걸쳐 총 5.5% 포인트 인상함

< 최근 3년 간 중국 기준을 변화 추이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배경) 2009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로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 확대, 소비 진작책 등 각종 적극재정 정책의 실시로 2009년 중국경제가 예상 밖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09년 상반기까지는 중국경제가 최대 6%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8%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됨

4)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신 예금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 조절의 목적으로 활용

- 느슨한 통화정책의 실시에 따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 버블과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2009년 12월 중국 70대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7.8% 상승, 상해종합주가지수는 2008년 말 대비 80% 정도 상승함
- 2010년 들어서도 신규대출 증가속도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함
 - 중국은 2010년 연간 신규대출 규모를 7.5조 위안으로 설정하였으나 1월 첫째 주에만 신규대출 규모가 6,000억 위안을 돌파함
- (전망) 중국인민은행과 관변 학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금변 기준을 인상 조치는 사실상 ‘출구전략’ 개시를 의미하는 것임
 - 2010년 상반기 중에 중국은 연속적인 기준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금융공사는 빠르면 3월 중에, JP모건은 연내에 최소 세 차례의 기준율 추가 인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민은행은 1월 7일 주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인 통안채의 발행 금리를 인상하는 등 가격 수단에 대한 조정에 나섬
- (영향) 중국이 기준율 인상에 이어 금리 인상과 유동성 흡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됨
 - 중국의 유동성 흡수 조치로 중국 자산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할 것임
 - 기준율 0.5% 포인트 인상은 유동성 5,000억 위안 이상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심리 변화로 증시가 우선 조정 받을 것임
 - 중국의 ‘출구전략’ 실시는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BICIS의 비상⁵⁾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이 주춤하는 사이 BICIS가 새로운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BICIS : 브라질(B), 인도(I), 중국(C), 인도네시아(I), 남아프리카공화국(S) 등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경제국들을 지칭함

< BICIS의 비상 >

국 가	내 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 달성 전망 - 2009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을 바짝 추격한 상태임 • 다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노령화·성장동력 약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 농촌 지역의 생필품 및 자동차 수요가 경제를 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위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 중임 • 또한 2010년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농업의 비중을 추월하면서 신흥 공업국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 2009년 7월 인도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를 상회하였으며 해외 자본 유입이 다시 급증하면서 공장들이 신설되고 있음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성숙된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절정기를 맞고 있음 • 지난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 5%의 성장률을 되찾았음 -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4년경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이후 매년 4~5%대 성장을 유지했으며, 안정적인 물가상승과 환율, 경상 수지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러시아를 밀어내고 신흥 대국 후보로 자리매김 하였음 - 중국·인도·미국에 이어 4번째로 인구 수가 많고 전체 인구의 1/3이 20세 미만이라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야자유·고무·코코아 등 농림자원과 원자재가 풍부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올해 아프리카는 4%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남아공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남한의 12배에 달하는 국토와 5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2005년 GDP는 2,419억 달러로 아프리카 전체의 27%를 차지 • 특히 올해 6월 월드컵 개최로 경기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

5) “글로벌 경제 新성장축 ‘부상’...투자열기 ‘후끈’”(한경비즈니스, 2010.1.11) 참조

□ 장수(長壽)의 의미

인생에 있어서 장수는 축복받을 일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비용이 증가한다는 등 장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종종 들리고 있다. 람에마뉴엘과 브루스 리드가 쓴 <더 플랜 - 미국의 새로운 비전과 민주당의 도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어지지 않는다.
노령화 사회에서는 이제부터
더 오래 사는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많은 다른 사회적 도전과는 달리,
나이가 든다는 것이 환영받을 일이고
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문제라는 사실은
이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민주당은 2006년에 집권을 위한 비전을 작성하는 중에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오래 산다는 것이 결코 국가 장래에 부담이 아니라 환영받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는 예측 가능한 일이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부문에서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대해 가격을 매기고 ‘상품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장수위험이란 보험업계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보험계리사가 예측하는 것보다 오래 살게 될 위험을 말한다. 장수(longevity)가 금융부문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영국은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장수채권(longevity bond)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수명은 이전 우리 선조보다 훨씬 늘어났다. 장수와 함께 건강이 함께 가면 그 의미는 더 클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깊고 풍부해진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잘 살리는 사회가 아름다울 것이다.

“별을 따려고 손을 뻗는 사람은 자기 발밑의 꽃을 잊어버린다.”

- 제레미 벤담(1748~1832) : 영국 정치가